



제277호 2022년 6월 1일

## AUKUS 그리고 인도 태평양의 해양안보

중국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modernization)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우위(primacy)에 큰 도전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정량적(quantitative)으로 이미 미국에 앞서고 있고, 정성적(qualitative)인 격차 또한 빠르게 좁히고 있다. AUKUS는 호주에 핵 추진 기술만을 전달하기 위한 협의적 파트너십 체제가 아니다. AUKUS는 사이버, 인공지능, 퀀텀, 수중, 극초음속 능력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중국의 해상통제(sea control)를 어렵게 하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상 강압적인 활동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KIMS Periscop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meritus Professor  
**Carlyle A. Thayer**

호주, 영국, 미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된 AUKUS는 현대화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 공군(PLAAF)과 인도 태평양 전역에 힘을 현시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견제하고자 형성되었다.

AUKUS는 군사적 동맹체제는 아니지만, 현존하는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UKUS의 핵심은 바로 “정보 … 과학,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첫 번째 핵심 과제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이다.

## 중국 해군의 부상

중국 해군은 대형 수상함 130척을 포함해 약 350척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이다. 나아가 중국 해경과 어업단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중국 공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규모가 크다.

중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SSN) 여섯 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핵잠수함(SSBN) 네 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다.

미 인도태평양사 사령관 필립 데이빗슨(Philip Davidson) 제독이 2021년 3월 9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언급했듯이, “미군은 여러 영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우위를 상실했다.”

데이빗슨 제독에 따르면 “이 경쟁에서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재래식 억제력의 약화다 … 신뢰성 있는 억제력이 부재했을 때,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비전에 담긴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담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호주의 국방장관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2022년 3월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은 18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KIMS Periscope

개월 마다 호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력 총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들은 핵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 보유량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들은 초음속 능력을 갖고 있으며 ... 동중국해에서 일본에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다. 그들은 남중국해에서 20곳 이상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 이에 더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하고 있다.

## AUKUS: 분업

2021년 9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의 스캇 모리슨 총리와 함께 AUKUS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에 따르면 18개월 내 “핵추진 잠수함을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들은 또한 협력을 위한 다른 4개 분야를 식별했다: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권تم기술, 그리고 수중능력이다.

언론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계획에만 집중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역내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중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계획이 비확산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지, “핵무장” 잠수함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 잠수함들은 보다 은밀하고, 지속가능하고, 현존하는 재래식 콜린스(Collins)급 잠수함보다 원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호주의 8개 잠수함은 남중국해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중국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의 분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잠수함들은 2030년이 되어서야 전력화될 예정이다.

## AUKUS: 구체화

AUKUS 정상들은 2022년 4월 5일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 기간 중 세 개의 고위급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KIMS Periscope

회담이 열렸다: 고위관리그룹(Senior Officials Group), 합동운영그룹(Joint Steering Group), 그리고 17개 워킹그룹(이 중 9개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그룹이며, 8개는 고급군사능력과 관련된 것이다)이 그것이다.

위의 고위급회의는 두 가지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첫 번째는 바로 호주에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을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는 것이다. 2022년 2월 8일, 해군 핵추진 정보 교환 협정(Exchange of Naval Nuclear Propulsion Information Agreement)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 세 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호주에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반시설과 산업능력을 평가했다.

7개월 사이, 원자력과 핵 기술 관련 고급 교육과정과 훈련을 받기 위한 인력을 선발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동쪽 해안에 잠수함 기지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고 호주 남쪽에 위치한 북 오스본(Osborne) 조선소 근처 토지를 매입했다. 마지막으로, AUKUS 회원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비확산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두 번째 중점 사안은 바로 고급군사능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AUKUS 수중 로봇 무인 시스템 프로젝트가 발족했으며, AUKUS 쿼텀 협의는 포지셔닝(positioning), 네비게이션(navigation), 그리고 타이밍(timing)을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 결론

중국 해군력과 공군력의 현대화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던 우위를 약화시켰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미국과의 정량적 격차를 좁히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빠른 속도로 제1도련선과 동(東)해안 내 효과적인 해상통제와 대항(counter-intervention)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AUKUS라는 3국 간 안보 파트너십은 중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호주, 영국, 미국은 신기술과 군사적 능력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례없는 협의체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력이 보다 구체화되어 극초음속, 사이버,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재래식 억제력은 강화될 것이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UKUS and Maritime Security in the Indo-Pacific**

Carlyle A. Thayer

Emeritus Professor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INTRODUCTION**

The creation of AUKUS, a tripartite partnership betwee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as a direct response by these three states to the moderniza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LAN) and Air Force (PLAAF) and their increasing ability to project power across the Indo-Pacific region.

AUKUS is not a new military alliance but “an enhanced trilateral security partnership” to build on existing bilateral ties. At its core, AUKUS is aimed at deepen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a range of security and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information ... science, technology, industrial bases, and supply chains.” Its first initiative is to assist Australia to acquire nuclear-powered submarines.

### **RISE OF CHINA’S NAVY**

The PLAN is the largest navy in the world totaling 350 ships and submarines, including 130 major surface combatants. China also has the largest Coast Guard and fishing fleet in the world and is the biggest shipbuilder globally by tonnage. The PLAAF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China currently is embarked on a program to construct six more nuclear attack submarines (SSNs) and four more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SSBNs) by 2030.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noted by Admiral Philip Davidson, Commander of the U.S. Indo-Pacific Command, in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March 9, 2021, “In 2019, I reported to this Committee we had lost a quantitative advantage and our qualitative advantage was shrinking across several domains as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fields higher quality systems.”

According to Admiral Davidson, the bottom line was clear – “The greatest danger for the United States in this competition is the erosion of conventional deterrence ... Absent a convincing deterren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will be emboldened to take action to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values represented in our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ustralia’s Defence Minister Peter Dutton noted in March 2022, “Every 18 months on a tonnage rate the Chinese Navy is producing more than what we have in the entire Royal Australian Navy. They are amassing nuclear weapons. They’re amassing missiles. They have hypersonic capability, and they’re involved in coercion ... They’re butting up against the Japanese in the East China Sea. There are now 20 points of military presence in the South China Sea ...” Subsequently, China deployed its J-20 fifth generation stealth multirole fighter over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 **AUKUS: DIVISION OF LABOR**

On September 16, 2021, U.S. President Joe Biden hosted a virtual summit with the U.K.’s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and Australia’s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that established AUKUS. According to the joint statement issued by the leaders, a trilateral effort would be undertaken over the next eighteen months “to seek an optimal pathway to deliver this capability.” This deadline has since been brought forward. The three leaders also identified four other areas of collaboration: cyber capabilitie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ies, and additional undersea capabilities.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edia coverage focused almost entirely on Australia’s acquisi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Malaysia and Indonesia raised concerns about an arms race in the region. China charged that providing Australia with nuclear-powered submarines violate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ustralia has made it clear that the submarines will be nuclear-powered but not nuclear-armed. These submarines will serve as a deterrent to China as they are stealthier, have greater endurance, and the ability to strike at long distances with cruise missiles than Australia’s current conventional Collins-class subs. Australia’s eight submarines will complicate China’s attempts to exert sea control over the South China Sea. They will also be able to participate in a division of labor with the U.S. and Royal navies. These submarines, however, are not likely to become operational until 2030 if not later.

### **AUKUS: FLESH ON THE BONES**

The three AUKUS leaders held their second meeting on April 5, 2022 to assess progress since their inaugural meeting. During this period multiple high-level meetings were convened by three separate groups: Senior Officials Group, Joint Steering Groups and seventeen Working Groups (nine concern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eight related to advanced military capability).

The work of these high-level meetings focused on two lines of effort.

The first line of effort concerned providing Australia with conventionally armed nuclear-powered submarines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On February 8, 2022, the Exchange of Naval Nuclear Propulsion Information Agreement came into force. It authorized the sharing of nuclear propulsion information on a trilateral basis. That same month, combined teams from the three countries visited multiple sites in Australia to assess its infrastructure, workforce and

---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industrial capabilities for the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he findings of these combined teams were reviewed by the Joint Steering Group.

During this seven-month period, Australian personnel were recruited to undertake higher-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Prime Minister Morrison announced plans to build a submarine base on Australia’s east coast and to acquire land adjacent to the Osborne North Shipyard in South Australia to house facilities to construct nuclear-powered submarines. Finally, AUKUS members initiate discussions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n non-proliferation concerns.

The second line of effort focused on the four advanced capabilities approved in September 2021 and four new advanced capabilities. An AUKUS Undersea Robotics Autonomous Systems project was launched with initial trials to be conducted in 2023. The AUKUS Quantum Arrangement will focus on technologies for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 and Advanced Cyber commenced.

The four new areas of trilateral collaboration include: hypersonic and counter hypersonic capabilities, electronic warfare in contested and degraded environments, innovation in defense enterprises, and sharing of sensitive information.

## CONCLUSION

China’s modernization of its naval and air forces has undermined the quantitative advantage historically hel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At the same time,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has begun to close the qualitative gap held by the U.S. In sum, China is rapidly developing the capability to implement an effective sea control and counter-intervention strategy in the first island chain off its east coast.

The formation of the AUKUS trilateral security partnership is a major development that will complicate China’s strategic goal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e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embarked on an unprecedented level of collaboration in cutting edge military technologies and capabilities. As this collaboration turns to practical application in such fields as hypersonics, cyber, quantum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 will enhance conventional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력

Carlyle A. Thayer is an Emeritus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t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 Canberra. He is also the Director of Thayer Consultancy, a small business registered in Australia that provides analysis of current regional security issues to selected clients.

## 국내외 참고자료

- [H I Sutton, “Chinese Increasing Nuclear Submarine Shipyard Capacity,” USNI News, October 12, 2020.](#)
- [Matthew P. Funaiolo, “A Glimpse of Chinese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CSIS, August 4, 2021.](#)
- [Christopher Woody, “With new operations on opposite sides of the world, Chinese military aircraft are showing off growing reach,” Business Insider, April 29, 2022.](#)

##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웹페이지보기](#)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